

자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얼마 전에 이곳에서 개정되고 강화된 법 때문에 앞으로의 스무가 위축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은 늘 있어 왔기에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사상 교육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몸담고 있기에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기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더 많이 손 모으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대학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무사는 한국어 강사로서 자유롭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한국어 코너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간접적으로 바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G스무회에서는 지난 여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 미뤄왔던 12주년 행사를 중앙아시아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동남아시아 K국 스무사 파송식도 함께 했습니다. 전체 이사들과 현직 스무사들, 후원자들이 모여 한 명의 스무사를 스무지로 파송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중순에는 파송된 5가정의 스무사 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초에 라오스, 태국 등 지역을 방문하여 훈련원 장소를 답사하였습니다. 스무사들이 집중해서 재훈련 받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과 충전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 U국에 있는 장소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재훈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강사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무사 멤버 케어를 위해 정기적으로 스무사들과 연락하여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무사 후보생을 긴밀하게 케어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말씀과 신앙 훈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땅에 대한 냉소적인 감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한결 같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의 마음이 이 땅을 품고 손 모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1월 박재용 이재영 조셉 다니엘 드림

그대 주십시오.

1. 온 가족이 영육이 강건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2. 한국어 수업을 통해 만나는 학생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3. 스무지역의 교회들과 스무도들의 연장 교육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혜롭게 섬기도록.
4. 스무사 재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등 사전 준비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스무동원 사역을 통해 신입 스무사가 모집되어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도록.